

대체에너지 전문 CEO가 없다!

미국, 가격경쟁력 떨어져 투자자 외면 ... 주가도 반토막

태양열과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 관련기업들이 경영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월16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태양에너지 상장기업 가운데 대부분이 2011년 최고경영자(CEO) 혹은 재무책임자(CFO)를 잃었다며 아직 후임을 찾지 못한 곳도 있다고 전했다.

태양에너지기업 퍼스트 솔라(First Solar), 선파워(Sun Power), 캐나다인 솔라(Canadian Solar) 및 JA 솔라 홀딩스(JASO)를 거론하며 정부의 보조금 감축과 중국기업의 급부상으로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투자자들도 갈수록 외면하는 이중고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CEO나 CFO가 속속 퇴진하면서 주가가 반토막 나는 어려움마저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열판 생산기업인 퍼스트 솔라는 2011년 10월 말 CEO가 떠난 후 주가가 4분의1 가량 떨어졌다.

셸(Royal Dutch Shell)과 사업을 벌였던 바이오연료 생산기업 코텍시스(CodexSys)는 2011년 1월 CFO가 떠난데 이어 2월 CEO가 퇴진했으며 2011년 6월에는 CFO 대행조차 회사를 떠났다.

코텍시스의 마케팅 책임자는 로이터에 “불확실성이 회사를 뒤흔들고 있다”며 “누가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비전에 대해 자주 질문 받는다”고 밝혔다.

코텍시스는 2012년 들어 주가가 절반가량 빠졌으나 여전히 새 CFO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에너지 전문 분석가 레이먼드 제임스는 “경영진의 잦은 퇴진 때문에 일선 직원의 사기도 말이 아니다”라고 우려했으며, 대체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서스테이너블 애셋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대체에너지 분야의 기반이 갈수록 흔들린다”며 “비전이 없고 보수도 다른 분야에 비해 적으니 누가 경영을 맡으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17>